

다시 이호리 전성시대... '예능퀵' · '제주댁' 이어 '린다 G'

'부캐' 보여주며 '본캐' 입지 다진 엔터테이너 센스 · 입담 · 과감한 성격...예능에 어울려

MBC '놀면 뭐하니?' 를 통해 썩쓰리 멤버 린다G로 활동 중인 이호리의 모든 것이 인기와 화제로 이어지는 요즘이다. 유산슬(유재석) 조지나(박나래) 등 예능인들이 시도하며 방송가에서 '부캐' (부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때이지만, 이호리아말로 그동안 수많은 '부캐' 를 보여주면서 '본캐' 의 입지를 탄탄히 해온 엔터테이너다.

대놓고 '부캐' 의 세계관을 만든 '놀면 뭐하니?' 에서 이호리는 그야말로 제대로 논다. 20년의 오랜 '부캐' 의 역사를 바탕으로 그룹 형태의 아이돌이 대거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호리는 핑클의 리더로 데뷔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사랑을 노래하던 '소녀' 들은 만인의 첫사랑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청순미에 탈탈한 매력, 나아가 그룹 활동 중반기에는 여전사 이미지의 콘셉트도 소화하며 날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이호리는 핑클의 인기의 중심에 있었다.

그룹활동이 마무리지어진 후 이호리가 선택한 것은 여성 솔로, 섹

시 콘셉트였다. 2003년 이호리가 내놓은 솔로 데뷔곡 '텐미닛' 은 이호리 신드롬을 일으켰다. 10분 안에 마음에 드는 남자를 유혹하겠다는 이호리에 대한민국이 흘렀다. 과격적인 섹시 콘셉트, 핑클 시절과 완전히 대비되는 반전이 이호리의 매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후 '다크엔젤' '톡톡톡' 이어 '유고결' 로 메가히트를 기록했고, '치티치티뽕뽕' '베드걸' 등 늘 변화하는 이호리표 섹시는 가요계, 문화계 트렌드를 선도했다.

◇ 예능퀵 이호리와 제주댁 이호리

이호리는 청순한 첫사랑, 섹시 아이콘 등 비현실적 이미지의 스타인데도 예능을 통해 대중과 가까워서 호응했다. 타고난 센스와 입담, 과감한 성격이 예능과 어울렸다. 1990-2000년대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주도적인 남성 출연자, 보조하는 역할의 여성 출연자 구도는 이호리에게 맞지 않았다.

이호리는 KBS '해피투게더' 에

서 신동엽과의 '티키타카' 호흡, SBS '패밀리가 떴다' 에서 유재석과 나눈 국민남매 호흡이 좋았다. 과감하게 토크를 주도하고, 꾸미거나 콘셉트를 내려놓은 진솔한 매력이 빛났다. 이에 그는 SBS 연예대상을 수상하는 등 '예능퀵' 의 타이틀까지 거머쥔다.

반면 결혼 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이호리의 모습은 과거와 달랐다.

역시 진솔하고 꾸밈없는 성격은 여전했으나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보다 더 깊은 생각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대표적으로 JTBC '호리네 민박' 은 결혼 후 공개되지 않았던 이호리의 일상과 변화를 가장 담백하게 담았다.

◇ 패셔니스타 이호리와 생각이 닮고 싶은 이호리

이호리가 하는 모든 것이 패션계를 흔들던 때도 있었다. 화려한 '이호리 스타일' 이 붙으면 '완판' '폼질' '인기' 가 따라왔다. 이호리의 인기는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곧 그의 위상을 더 단단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이호리는 외적인 스타일이 닮고 싶은 사람을 넘어 생각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됐다. 모피코트를 입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동물은 '사냥' 것이 아닌, 입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모습과 확 달라진 모습에 이호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호리는 자신의 과거도 날 선 시선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변화한 모습으로 곳곳이 산다. 그는 최근에도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구두를 신고 카메라 앞에 섰다.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에 쓰는 것, 그것이 이호리가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삶이다.

◇ 이호리의 모든 '부캐' 결정체 인 린다G

'토토키' 에서 '오빠 나 서울가고 싶어' 라던 제주댁의 한마디가 실현됐다. 왕년의 청순아이돌, 섹시스타, 제주댁, 예능퀵까지 기존의 이호리가 보여준 모든 모습이 모인 린다G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 썩쓰리 프로젝트는 이호리가 놀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다. 그는 과거의 활동, 90년대 문화를 거쳐 온 사람이자 가수, 예능 활동의 최정상에 서 본 이다.

이호리는 적극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요즘 음악과 문화를 더해 새로움을 찾으려 한다. '나때는 말이야 나', '요즘 애들' 이라는



말을 꺼내도 그가 왕년의 스타 혹은 끈대로만 보이지 않는 건, 요즘 문화를 공감해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그러면서 이호리는 단순히 이호리와 함께 나이를 먹은 이호리 세대의 공감만 받는 게 아닌, 요즘 애들까지 이호리 세대로 만드는 힘을 보여준다.

'허당기' 도 닮은 이승기x류이호, 2인 혼남 스타들의 랜선 여행기

닮은 꼴 동갑내기 스타...안구정화 힐링 여행 버라이어티



미소부터 허당 매력까지 닮은 아시아의 두 스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대만 배우 류이호가 예능으로 만났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예능인 '투게더' 를 통해 두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23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투게더' 제작 발표회가 생중계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승기 류이호와 조효진 PD 그리고 고민석 PD가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투게더' 는 이승기와 류이호,

언어도 출신도 다른 두 명의 동갑내기 스타가 올 여름, 아시아 방방곡곡을 돌며 팬 찾아 떠나는, 넷플릭스의 안구정화 힐링 여행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앞서 '투게더' 는 닮은 꼴 두 스타의 만남만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았다. 예능 고수 이승기와 예능 초보 류이호는 환상적인 케미스트리 만으로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욕카르타와 발리, 태국의 방콕과 치앙

마이, 네팔의 포카라와 카트만두까지 현지 팬이 이들을 위해 직접 선정한 장소로 떠났다. 속이 탁 트이는 시원한 절경과 유쾌한 액티비티, 그리고 청량한 아시아 일주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대체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사람이 '투게더' 에 출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승기는 "제가 예능 만렙까진 아니지만 예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범인은 바로 너' 시리즈를 했던 조효진 감독님 팀과 버라이어티 할 때도 오랜 시간 인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발했다. 뭐랄까, 요새 하는 예능과는 조금 다른, 정말 버라이어티 하고 어드벤처가 가미된, 스케일이 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획을 갖고 계셔서 흔쾌히 참여를 했다"며 "또 아시아 스타 류이호가 함께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친구가 되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류이호는 '투게더' 가 생애 첫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그는 "예능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보다 불가사의한 일이 많았

고 저를 보살펴준 제작진에 감사하다"며 "또 이승기를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게 됐는데 제가 과파라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류이호는 한국에서 '남친짤' 로 유명한 대만 스타이기도 하다. 그는 "예전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다"며 자신의 매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예능 초보라는 게 매력이 아닐까 한다"며 "저나 승기씨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게 매력이 아닐까 했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캐스팅되지 않았을 거"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다.

이승기는 이번 여행에 대해 "스타일이 달랐지만 잘 맞았다. 둘 다 궁금한 걸 찾아가고 발견하는 걸 둘다 좋아했다."

스타일은 달랐지만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류이호도 "저도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여행이 너무 즐거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이호는 "이승기가 너무 똑똑하다. 치앙마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지 했다.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됐다. 승기씨를 이기는게 정말 어렵겠다 했다"고 말해 이승기를 으스스하게 했다.

대선주자 언급에 백종원 "정치" 뜻 없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측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주자 언급에 대해 "정치" 에 뜻이 없다"고 전했다.

23일 백종원 측 관계자는 뉴스1에 이같이 밝히며 "백종원 대표는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정치에 뜻이 없다는 생각을 밝혀왔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관련 보

도가 쏟아지자 다소 당황스러운 기색도 내비쳤다.

백종원은 여러 식당 브랜드를 거느린 더본코리아의 대표이면서 MBC '백종원의 골목식당' '맛남의 광장' 등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방송인이기도 하다. 그는 방송을 통해 식당 경영 및 음식 문화 개선에 힘쓰고, 농어촌 살리기 캠페인을 하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다.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 정계 입문설도 여러 차례 나왔으나 매년 "정치에는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16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비례대표 제안' 질문을 받고 "큰일 날 소리" 라며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KBS 2TV '대화의 희열' 에서 "정치 제안" 전화 한통도 안 받았다"며 "이 순간까지 정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청하, KXO 홍보대사 발탁

오늘 위촉식 진행

가수 청하가 KXO(한국3x3 농구위원회, 회장 김태우)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KXO는 24일 오후 4시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홀에서 가수 청하가 참여하는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다.

지난해 출범한 KXO는 출범 원년 6번의 국내대회와 2번의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한국 3x3 남자 대표팀의 2020 도쿄올림픽 3x3 농구 1차 예선 진출에 힘을 보탬 바 있다. 출범 원년을 성공적으로 보낸 KXO는 새로운 도약의 일환으로 가수 청하를 홍보대사로 위촉, 3x3 팬들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계획이다.

김태우 KXO 회장은 "10~20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하가 KXO 홍보대사로 합

계해주셔서 영광"이라며 "최근 3x3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청하가 KXO 홍보대사로 활동해주면서 더 많은 3x3 팬들이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KXO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청하는 온,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KXO 대회가 열리는 현장도 찾아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청하는 지난 2016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1' 으로 유명해졌으며 '와이 돈츄 노우'(Why Don't You Know),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러브 유'(Love U), '스내핑'(Snapping), '벌써 12시'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솔로 여자 가수로 입지를 다졌다. 오는 7월 6일 컴백을 앞두고 있다.

'서프라이즈' 김하영, "재연배우로 남으라니"...온갖 비난글에 "서운"

배우 김하영이 '서프라이즈' 픽 MC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뜻밖의 해명과 함께 자신을 위로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김하영이 해명을 하게 된 시발점은 앞서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에 김하영이 단독 MC로 발탁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MBC 개시관 등을 통해 "제작진 측에서 김하영을 띄워주고 밀어주려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편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하영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프라이즈" 의 새로운 시도로, 제가 시험삼아 초반에 (진행) 맡게 됐다"며 서프라이즈에 가장 오래 출연했고,

얼굴이 익숙한 제가 (방송이) 자리 잡힐 때까지 잠시 하게 됐다"고 MC로 낙점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MBC) 개시관에 김하영 띄워주려는 거냐", "재연배우로 남으라" 라는 온갖 비난글들 생각을 하고 글을 남긴 것인가?"라고 물으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또 "나 역시 새로운 시도에 아직 적응을 하지 못했고, 연기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빨리 서프라이즈 픽 MC 바뀌달라고 말할 뻔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그만두고 싶다는 반박했다.

김하영은 "나는 제작진 결정에 따라 촬영하는 배우일 뿐이다"라



며 "하루에 서프라이즈 두개씩 촬영하는 것은 나 역시 힘든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원을 못해줄 망정"이라고 덧붙이며 다시 한번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김하영은 "#그레도 당분간은 서프라이즈픽에서 내 얼굴 봐

야 할걸" 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이는 등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해당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누가 돌을 던지냐", "와플은 신경쓰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배우에게 해서는 안될 말이다" 라며 그녀를 응원했다.